
2025-2026년

미래세대 교육 커리큘럼

품성교육을 중심한
기본신앙교육

Contents

1

미래세대, 품성과 신앙으로 자라나다

- 1) 참부모님 말씀
- 2) 머리말 I 왜 지금 ‘품성’과 ‘기본신앙’을 가르쳐야 하는가
- 3) 미래세대 교육 커리큘럼의 교육 목표와 방향성

2

미래세대 교육 커리큘럼 개요

- 1) 커리큘럼 개요
- 2) 커리큘럼의 두 축 : 품성교육, 기본신앙교육
- 3) 효동부, 성화부 커리큘럼 운영 방식

3

품성교육을 중심한 기본신앙 교육 커리큘럼

- 1) 품성교육 주제
- 2) 기본신앙교육 주제
- 3) 품성교육을 중심한 기본신앙 교육 커리큘럼

4

미래세대 교육 커리큘럼 활용 가이드

- 1) 효동예배 활용 가이드
- 2) 성화예배 활용 가이드

5

품성과 신앙이 자라는 가정 - 부모 가이드

- 1) 미래세대 가정예배의 중요성
- 2) 품성을 중심한 기본신앙교육 콘텐츠 가정예배 활용법
- 3)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가정예배 루틴 만들기

제1장 | 미래세대, 품성과 신앙으로 자라나다

- I. 참부모님 말씀
- II. 머리말 | 왜 지금 ‘품성’과 ‘기본신앙’을 가르쳐야 하는가
- III. 미래세대 교육 커리큘럼의 교육 목표와 방향성

I | 참부모님 말씀

“우주의 주인되시는 창조주 하늘부모님

오늘 이 한 날을 맞기까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6천년 참고 기다려

오늘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늘부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참부모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가정을 통해서 **2세권 · 3세권 · 4세권 퓨어워터**들이
당신의 지상천국의 모습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5.04.13. 홀리마더한 참어머님)

“**3대권**을 내가 세우고 있는 거야. 인류를 위해서. 정도를 가게 하기 위해서.

참부모는 영원히 한 분이야. 참부모 섭리를 받들어서 이행할 수 있는

중심인물을 세우는 거야. 그거는 **내가 세우는 거야.**”

(2024.09.24. 홀리마더한 참어머님)

승리한 참부모를 통해서

새 역사가 출발이 된 지 13년을 맞게 됩니다.

참부모의 책임은 지상에서 하늘부모님의 꿈, 창조의 이상,
지상천국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참부모는 많은 축복가정들을 전 세계적으로 탄생시키어

그들을 통해 **2대 3대권 전 세계 널리 있는**

퓨어워터 자녀들로 말미암아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미래는 아주 영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실천이

오늘 하늘부모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은사의,

감사의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5.01.01. 홀리마더한 참어머님)



II | 머리말

왜 지금 '품성'과 '기본신앙'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고 Holy Mother Han 참어머님과 하나되는 퓨어워터

참어머님께서는 3대권을 세우시며 퓨어워터 자녀들이 하늘부모님의 지상천국을 이루는 주역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며, 축복가정을 통한 혈통과 신앙의 전통을 세계에 정착시키고자 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로 나아가듯, 미래세대인 퓨어워터인 Holy Mother Han 참어머님과 하나되어 전 세계 인류를 모두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는 세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늘부모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품성과 기본신앙 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는 자녀들이 참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사명을 자각하며, 지상천국을 실현해가는 삶의 기반이 됩니다.

품성교육의 필요성: 시대 변화와 교육 환경의 문제

오늘날 아이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과 인공지능, 스마트폰과 디지털 미디어는 아이들의 사고방식과 관계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가능성과 함께 커다란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 감정 조절의 어려움, 공감 능력의 부족은 단지 일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세대가 겪고 있는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또래 간 상호작용이 줄어들었고, 핵가족화와 부모의 양육 시간 부족은 가정 내 인성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과 상담 현장에서도 사회성 약화와 정서적 불안, 공동체 소속감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아이들의 인격과 삶의 중심을 세워줄 수 있는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품성과 인성이 아이에게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영향

품성과 인성을 바르게 훈련받은 아동과 청소년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뚜렷한 목적의식과 자기조절력을 갖추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감 능력을 자연스럽게 발달시키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존중하는 태도는 가정과 학교, 사회 전반에서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집중력과 학업 성취도 역시 함께 높아집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키우게 되며, 이는 아이의 자존감과 자율성, 책임감까지 함께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품성과 인성이 잘 형성된 아이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갖추며,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됩니다.

품성을 중심한 기본신앙 교육의 필요성

참된 품성교육은 사람의 본성과 가치를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이끌어 줍니다. 하늘부모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은 곧 신앙과 연결됩니다. 신앙은 예배에 참석하거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운 뒤, 그것을 일상 속에서 살아내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참부모님께서 강조하신 ‘생활신앙’은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며 실천하는 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삼는 신앙입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 가치를 태도와 관계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품성 중심 신앙교육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감정과 행동을 조율하는 능력을 키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도 분명해집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늘부모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의 기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올바른 판단과 분별의 힘도 함께 자라며,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춘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품성과 신앙이 함께 자라는 이 교육은 지금 시대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참된 교육입니다.

하늘의 품성을 닮아가는 길, 품성교육

천일국은 하늘부모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서로를 참사랑으로 연결하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미래세대가 천일국의 백성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늘의 성품을 배우고 실천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경청**은 진정한 공감의 시작이고, **배려**는 관계를 살리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책임감**은 하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품성교육은 도덕적 지식이나 규칙 교육을 넘어서, 하늘부모님의 창조 본성을 회복하고, 참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참사랑의 인격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품성은 말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삶을 보고 배운다”는 진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고, 느끼고, 실천하면서 배우는 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세대통합형 교육의 필요성과 『미래세대 교육 커리큘럼』의 방향

우리 사회는 지금 세대 간의 단절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럽은 산업화에 300년 이상이 걸렸지만, 대한민국은 불과 30~50년 만에 전통사회에서 디지털 정보사회로 급격히 전환되었고, 그 결과 세대 간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이를 ‘5년 세대론’으로 설명하며, 5살 차이의 형제자매도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간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세대 단절은 가정, 교회, 학교, 사회 전반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교육 커리큘럼』은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세대 간 신앙의 공감대를 회복하고, 가정 안의 신앙소통을 돕기 위한 교육적 해법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 커리큘럼은 하늘부모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삶과 참부모님의 신앙 실천을 본받는 것을 중심 가치로 삼으며, 효동부와 성화부가 같은 주제를 각자의 눈높이에 맞게 함께 배우고 실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가 같은 말씀을 함께 훈독하고 실천하는 세대통합형 신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미래세대 교육 커리큘럼』은 나이나 수준을 넘어, 하늘부모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이어주는 공동체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품성을 기르고 기본신앙을 실천해가는 이 여정을 통해, 뛰어워터 자녀들이 천일국 시대의 주인공으로 자라나도록 돕습니다. 그 실천의 출발점이 바로, 세대가 함께 배우는 『미래세대 교육 커리큘럼』입니다.

III | 교육 목표 및 방향성

01 교육 목표

- 1) 하늘부모님의 창조 본성을 닮아, 하늘부모님의 품성을 지닌 자녀로 성장한다.
- 2) 참부모님의 성품을 본받아, 품성을 바탕으로 한 기본신앙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한다.
- 3) 퓨어워터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도 하늘부모님의 자녀로서의 품격과 인격적인 성숙을 갖춘 자녀로 성장한다.

“ 품성 중심 기본신앙교육을 통한
하늘부모님을 닮은 자녀, ‘퓨어워터’ 양성 ”

02 교육 방향성

1)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품성교육

경청, 감사, 책임, 절제, 배려와 같은 하늘부모님의 성품을 실제 일상생활과 주변 관계에서 드러나도록 품성교육을 진행합니다.

2) 마음과 몸에 익히는 기본신앙교육

예배와 기도, 훈독과 실천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러한 기본신앙 요소들이 삶의 리듬이 되도록 반복적이고 생활 중심적인 훈련을 통해 익히게 합니다.

3) 하늘부모님의 자녀, 퓨어워터라는 정체성 형성

미래세대는 자신이 하늘부모님의 품성을 닮은 자녀이며, 맑은 물로서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하도록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을 닮은
자녀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 ”

제2장 | 미래세대 교육 커리큘럼 개요

- I. 미래세대 교육 커리큘럼 개요
- II. 커리큘럼의 두 축: 품성교육과 기본신앙교육
- III. 효동부 및 성화부 운영방식 및 구성

I | 미래세대 교육 커리큘럼 개요

01 커리큘럼 소개

『미래세대 교육 커리큘럼』은 하늘부모님의 본성을 닮고, 참부모님의 삶을 본받아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자녀로 성장하기 위한 신앙 교육 과정입니다. 이 커리큘럼은 자녀들이 삶 속에서 하늘부모님의 사랑과 심정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효동과 성화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전 세대가 동일한 주제를 중심으로**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동부와 성화부가 한 주제를 중심으로 같은 말씀을 훈독하고 각자의 실천 방식으로 적용함으로써, **세대 간 신앙의 일관성과 연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래세대 교육 커리큘럼』은 **2025년 9월 첫째 주부터 2026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주차 단위로 진행되며, 성화부는 월 2주차, 효동부는 월 3주차로 구성됩니다. 모든 주제는 퓨어워터(Pure Water)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향하고 있으며, ‘맑은 물은 흘러야 한다’는 말씀처럼 자녀들이 삶 속에서 본이 되는 실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미래세대 교육 커리큘럼』은 『천일국 가정예배 품성교재』에 담긴 40가지 **품성 주제**를 통해 자녀들이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도록 돕는 품성교육과, **‘모심, 감사, 정성, 실천’의 신앙 습관**을 기도·훈독·찬양과 연결하여 익히는 기본신앙교육으로 구성됩니다. 효동부와 성화부가 같은 주제를 함께 배우고 실천하면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신앙을 함께 나누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이 천일국 시대에 맞는 품성과 신앙을 지닌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이끌어 줍니다.

II | 커리큘럼의 두 축: 품성교육과 기본신앙교육

01 품성교육 : 하늘부모님의 성품을 닮기 위한 인격 교육

하늘부모님의 창조 본성을 닮아가기 위한 40가지 품성을 중심으로, 미래세대들이 인격적인 성숙을 경험하고 타인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청, 감사, 책임, 절제 등 일상 속 실천 가능한 품성을 중심으로 하여, 내면의 성장과 인격 향상을 도모합니다.

02 기본신앙교육 : 모심, 감사, 정성의 기본신앙생활을 실천 하는 교육

기본신앙교육은 ‘모심, 감사, 정성’의 신앙생활을 중심축으로 합니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일상 속에서 모시며, 감사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릅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 및 훈독생활을 하고, 예배를 꾸준히 드리며 일상 생활에서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참부모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성장합니다. .

III | 효동부 및 성화부 운영방식 및 구성

01 효동부 커리큘럼 운영방식 및 구성

효동부 커리큘럼은 매월 1주차, 2주차, 3주차의 총 3회 분량으로 구성되며, 각 주차별 콘텐츠는 **주제와 관련된 찬양, 스토리가 담긴 말씀영상, 가정용 활동지**로 제작됩니다. 매달 총 **3편의 영상**이 제공되며, 유튜브  **효동T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2주차는 성화부와 동일한 공통 주제를 다루며, **효동의 눈높이에 맞는 스토리 중심** 영상 제작.
- 효동부는 5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영상은 **초등 저학년 수준**에 맞춤.
- 3주차는 효동이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동화 형식**으로 제작.

말씀영상은 효동의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캐릭터와 스토리, 흥미로운 소재를 통해 교육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Youtube '효동TV'에서 매월 3편씩 배포]

2025년 7월
효동예배 개요 및 일정

주제
1. 생애노정 주제: 환경창조
2. 품성 주제: 만물사랑

핵심내용
 하늘부모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
 인종, 종교, 국가를 넘어선 평화 운동
 하늘부모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우리를 위한 선물

예배일정
1. 7월 1주차(7/6) - 생애노정
 • 말씀영상: 53화 '지구사랑 해양탐사대'
 • 예배자료: 도입 말하기, 말씀퀴즈, 효정공과
 • 주제찬양: '선물'
2. 7월 2주차(7/13) - 생애노정
 • 말씀영상: 54화 '평화를 담은 편지'
 • 예배자료: 도입 말하기, 말씀퀴즈, 효정공과
 • 주제찬양: **신규동요 '모두개'**
3. 7월 3주차(7/20) - 품성교육
 • 말씀영상: 55화 '지구 지킴이'
 • 예배자료: 도입 말하기, 말씀퀴즈, 효정공과
 • 주제찬양: '모두모두 내 친구'

가정용 활동지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워크북

[콘텐츠 개요]

2025 55화 부디그 31살이 내게서 한생
하늘부모님이 창조하신 선물 만물사랑

2025 54화 허락하옵소서 새날 만물가
내게 계영하여 감언장 배천동행하연장

지구 지킴이 16:09

평화를 담은 편지 12:02

55화 지구 지킴이 | 효동예배
말씀 영상
효동TV
조회수 600회 · 2주 전

54화 평화를 담은 편지 | 효동
예배 말씀 영상
효동TV
조회수 632회 · 3주 전

[스토리 중심 영상말씀]



[주제와 관련된 율동&찬양]

6월 효동 활동지

활동 내용 | 엄마 아빠와 함께 드리는 감사기도  가정용

1 감사기도 마무리 문장을 따라 써 보아요.

Holy mother Han을 모신
축복가정 자녀()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2 엄마 아빠와 함께 감사기도를 드려보아요.

Holy mother Han을 모신
(홀리 마더 한)
축복가정 자녀(나의 이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가정용 활동지]

02 성화부 커리큘럼 운영방식 및 구성

성화부 커리큘럼은 **매월 2회, 1·2주차 콘텐츠**로 구성되며, **전국성화교사 카톡방**에 공유됩니다. 효동부와 동일한 주제를 중심으로 정체성 형성기인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게**, 신앙적 이해와 실생활의 적용을 목표로 합니다.

- 성화부 예배 콘텐츠는 **말씀 설교안**과 그에 맞는 **PPT 자료**로 구성
- 청소년의 사고 발달과 신앙 성장 단계에 맞춰, 스스로 생각하고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일상에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
- 훈독, 나눔, 실천 적용을 통해 참부모님의 삶을 본받는 **자율적 신앙 훈련**을 지향

성화부는 자신의 신앙을 정립하고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매월 2편씩 배포되는 말씀 설교안과 PPT]

2025년 7월

성화예배 개요 안내

1차시

1. 예배 주제(생애노정) : 한민족 선민

2. 예배 자료 : 설교안 및 말씀 PPT

3. 설교 제목 : 마지막 한 조각이 되어



마지막 한 조각이 되어

2차시

1. 예배 주제(품성) : 책임

2. 예배 자료 : 설교안 및 말씀 PPT

3. 설교 제목 : 특별한 우리, 특별하게 살기



특별한 우리,
특별하게 살기

[콘텐츠 개요]

성화부 설교안 7-1	
제목	마지막 한 조각이 되어.
목표	1. 오랜기간 미루어진 하늘부모님의 창조의 꿈이 있었음을 안다. 2. 우리는 하늘부모님이 독생녀를 보내시기 위해 준비하신 선택 받은 한민족임을 안다. 3. 우리를 품으시고자 오래도록 수고하고 기다려오신, 하늘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4.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뤄 드리기 위해 평생을 수고하신 참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5. 참여머님과 같은마음으로, 하늘부모님의 꿈을 완성시키는 성화학생이 되고자 다짐한다.
훈독말씀	“하늘부모님은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원칙에 의하면 독생자 혼자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독생녀는 없었습니다. 인류의 참아버지가 되실 분을 십자가로 내몬 이스라엘은 탕감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늘은 탕감이 남아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는 독생녀를 탄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선민을 찾아 세워 내려오셨고 그것이 바로 한민족입니다. 독생녀는 기독교 기반을 통해서 탄생되어야만 합니다. (2023.12.25, 천정궁)”

[말씀 설교안]



13 '한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시어 독생녀 준비



기록교 선택
홍순애 때모님의 정성



6월년 만의 '독생녀' 탄생



어린양 혼인잔치, 인류역사 최초의 참부모

[설교 PPT]

03 미래세대 교육 커리큘럼 개요 정리

구분	내용
대상	효동부(5세~13세),성화부(중1~고1)
기간	2025년9월 1주차 ~ 2026년12월 마지막 주 (총 17개월)
운영주기	효동부: 매월 3주 구성 성화부: 매월 2주 구성
총 구성주차	효동부: 약 51주차분량 성화부: 약 34주차분량
주제 운영방식	매월 동일 주제 1·2주차:성화·효동공통 주제 3주차: 효동 생활동화 콘텐츠
교육내용	품성교육(40가지중심 품성) + 기본신앙교육(모심·감사·정성의신앙생활)
교육내용 참고서적	품성교육: 천일국 가정예배 품성교재(2025) 기본신앙교육: 미래의 희망 퓨어워터(2020)
운영목표	연령은 다르지만 동일한 주제와 말씀을 바탕으로 세대 간의 신앙 일관성과 연결성 확보
콘텐츠 형태	효동부: 주제 찬양, 말씀 영상, 가정용 활동지 성화부: 설교안 + PPT

제3장 | 품성교육을 중심한 기본신앙교육 커리큘럼

- I. 품성교육
- II. 기본신앙교육
- III. 품성교육을 중심한 기본신앙교육 커리큘럼

I | 품성교육

01 품성교육 소개

품성교육은 미래세대들이 가정, 학교, 사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 가능한 핵심 인격 요소들을 길러 가는 과정입니다. 본 『미래세대 교육 커리큘럼』에서 다루는 품성교육 주제는 『천일국 가정예배 품성교재』에 수록된 40가지 품성과 관련 참부모님 말씀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02 품성의 정의 및 참부모님 말씀

1) 경청 : 상대방의 말이나 일에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마음의 태도

어떤 때는 아예 시나가와의 빈민굴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누더기를 뒤집어쓴 채 잠들고 햇빛이 좋은 한낮이면 이를 잡으며 거지들이 얻어온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시나가와의 거리에는 떠돌이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사연을 들어주다보니 술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내가 어느새 그들의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술을 마셔야 본심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공연한 핑계입니다. 술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그녀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내 마음이 진심인 것을 알게 되자 그녀들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86쪽)

2) 배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주는 것

모든 것의 토대에는 ‘위하는 삶’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자가 부자된 것에 대해 고마워할 줄 모르고 돈을 더 모으는 데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며 남을 도와주는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차별 없이 그 선물을 골고루 누려야 합니다. (평화의 어머니 208쪽)

3) 봉사: 보상 없이 섬기거나 도와주는 행위. 사랑하며 위하는 것

통일교회는 지금 세계의 종교로 자리 잡았지만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변변한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식구들이 헌금을 내면 그 돈은 전부 우리 사회와 세계를 위해 쓰였습니다. 선교사가 해외로 떠날 때도 낡은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갔습니다. 임지에서 스스로 노동을 해서 그 돈으로 어렵사리 교회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신도들의 헌금은 여러 나라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모두 쓰였습니다. 그런 봉사와 베품은 지난 60년 동안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봉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1994년 사회단체 ‘애원은행’을 세워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모든 식구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평화의 어머니 244쪽).

4) 신뢰성: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

지금까지 복귀역사에서 하나님이 협조할 때마다 전부 속아 왔고, 언제든지 전부 손해를 봐 왔는데, 여러분들을 믿고 했다가는 틀림없이 속게 마련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안다구요. 여러분이 암만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그 간나, 그놈의 자식! 보자, 보자. 한 3년쯤 가다가는 흔들흔들하겠구만’ 할 때, 하나님이 3년 전에 이루어 주겠나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선집 104-103)

5) 만족: 현재와 미래의 행복에 필요한 것이 내 속에 있다고 깨닫는 것

참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자기 분수를 알고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이 기뻐서 하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하늘이 모른다고 하시겠어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많은 면에서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15.10.30 천정궁)

6) 솔선: 남보다 앞장서서 먼저 함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저는 미친 듯이 세상을 품으려 다녔습니다. 입안이 헐고, 다리가 붓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과 약속, 아무리 뜻이 힘들어도 내 대에서 끝을 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면 달을 벗삼아 대화하며 아버님의 성체를 앞에 두고 제가 했던 약속 “생이 다하는 날까지 천일국을 이 땅에 정착시키겠다.”는 그 결의를 되뇌이며 살아왔습니다. (2019.8.17, 청심평화월드센터)

7) 조심성: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쓰는 성질이나 태도

소명의 길을 따라 나오는 데는 내적인 투쟁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투쟁을 가려 가는 것은 책임자가 잘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책임자가 잘못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자가 잘못하면 큰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더라도 지나치게 기뻐하지 말고, 나쁜 것을 보더라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기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아 정부(正否)를 가려 가면서 조심스럽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40-98)천일국 가정예배 품성교재_본문_v1224보완

8) 만물주관: 만물의 가치를 알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여 그 만물 스스로가 인간의 주관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겨 받도록 하는 것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참사랑으로 일치된 자리에서 자연만물을 주관하게 되면, 결국 인간은 상대를 위하여 사는 참사랑으로 만물을 주관하는 것이 되므로, 인류는 그동안 이기적으로 개발, 남용하여 파괴의 자리로 내몰았던 자연에 대한 자세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연만물도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식량과 미적 자극과 적절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19.2.13, 서울 잠실롯데호텔)

9) 감사: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준 혜택에 대해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이 쉽지 않지만,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음과 몸이 통일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회개할 때 감사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항상 하늘부모님이 나와 동행, 동고, 동락하심을 깨닫는 수련을 해야 됩니다. 늘 기뻐하면서 쉬지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서 천만사에 이르기까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14. 9. 23, 일본 지바 마쿠하리 이벤트홀)

10) 효성: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는 사랑.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는 정성

나에게는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고,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상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줄은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 끊고 우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주의 모든 힘이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어머니 아버지가 따라오게 됩니다. 저 영계까지도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나 함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동행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우주를 파탄시키는 파괴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자기 몸같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화목한 가정에 복이 온다.’라는 말도 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천성경 3.2.4:9)

11) 근면: 맡은 일을 총력을 다해 신속하고 능숙하게 해내는 것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이 60년이든 70년이든 결국은 모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보통 사람의 두세 배가 되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을 필요에 따라 잘게 쪼개 뒤 한 순간도 헛되이 쓰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면 그 삶은 참으로 귀해집니다. 남들이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때 두세 그루의 나무를 심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세로 인생을 사십시오. 자신을 위해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내 가정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내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262쪽)

12) 과단성: 정확한 사실, 지혜로운 조언, 명확한 목표를 근거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

세계를 구원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결심해야 문 총재도 참부모가 되기 위한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전개될 그 노정이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위하고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반드시 이루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당대에서 복귀섭리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하늘부모님이 이루시려는 뜻을 반드시 이뤄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모든 삶을 그 다짐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115쪽)

13) 의지력: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끈끌하게 지켜 나가는 힘

나는 평생을 한 가지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평화로운 세상, 전쟁과 다툼 없이 온 세계가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평생을 평화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바람은 세상을 겹겹이 에워싼 담장과 울타리를 깨끗이 헐어버리고 하나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의 담장을 허물고, 인종의 울타리를 넘어서 부자와 빈자의 틈을 메운 뒤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평화로운 세상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도 없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없는 세상 말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14쪽)

14) 관용: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사랑하는 자식을 대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결점이 있더라도 그 결점을 먼저 들춰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좋은 점만 닮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악한 면을 보고 뺨을 때렸을지라도 그것을 동정하고 후회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것은 그때의 악한 여건을 기준으로 해서 때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닮은 작은 부분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악한 면보다 크게 보려는 기준을 중심삼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천성경 5.4.3:3)

15) 지혜: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지혜 중의 지혜는 하나님의 심정과 이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하늘을 찌를 듯한 21세기에도 종교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종교는 인류의 나아갈 바를 정확히 알고 지금 당장 크고 작은 이익 싸움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체면을 앞세운 명분 싸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일에 부지런히 나서야 합니다. 갈등과 증오로 얼룩졌던 지난날은 이제 그만 잊고 평화로 풀어야 합니다.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인류를 이상세계로 이끌어 가는 종교인들은 스스로가 평화의 사도인 것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325쪽)

16) 신중: 지혜를 쓰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처음에는 물새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보호색이 얼마나 완벽한지 물새의 깃털이 영락없는 수초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을 낳자 그제야 그곳에 있는 녀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새는 잔뜩 웅크린 채 까만 자갈돌 같은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자 어미가 먹이를 구해와 새끼들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먹이를 물고 오는 어미는 새끼가 있는 동지까지 절대로 한 번에 날아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동지에서 멀찌감치 날개를 접고 걸어서 새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것도 매번 다른 방향에서 걸어갔습니다. 자기 새끼들이 사는 동지의 위치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어미 새의 지혜였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239쪽)

17) 경각심: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활동하는 사탄에게 참소조건을 제시하는 요인이 됩니다. 사람들이 복귀노정을 걸어감에 따라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는 사탄은 온갖 방법을 통하여 재침범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엄격한 계율이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습관에 의존한 세속적 생활은 여러분 자신의 과거생활에 쉽게 말려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참된 생활의 방도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은 오직 참사랑과 지속적 자기 희생의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사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울지라도 공의를 실행할 때 인간의 위대한 만족도 얻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천성경 8.1.2:1)

18) 진실성: 참되고 정확한 사실을 삶과 말로 전달하는 것

사람들이 금도 순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 좋아하지요? 황금덩이 좋아하지요? 금 중에도 순금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 순금을 좋아하느냐? 그것은 환경에 지배 받지 않는 초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환경에 지배 받지 않는 초월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슬픈 사람이 보아도 그 빛이요, 기쁜 사람이 보아도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40-9)

19) 열성: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통해 나타나는 것

그 시절은 모두들 배가 고팠습니다. 유학생들 중에는 고학생이 많았습니다. 나는 한 달치 식권이 나오면 모두 들고 나가 고학생들에게 주며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하며 다 써버렸습니다. 나는 돈을 버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무데라도 가서 노동을 하면 밥은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돈을 벌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를 도와주는 것도 나의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남에게 도움을 주고 밥을 먹이면 온 몸에서 힘이 펴펴 났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83쪽)

20) 순종: 나의 책임자의 지시나 소원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상에 오를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제물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면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이삭은 어린 나이임에도 처해진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이 하늘에 바쳐질 제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삭이 장작더미에 누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신부로 준비해 오셨던 것은 하늘의 섭리요 예정임을 깨닫고 의문을 갖지 않았습니 다. 단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 다. 그와 같은 하늘의 음성을 나는 무아의 경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114쪽)

21) 온유: 성격, 태도 따위가 평안하고 부드러움

인간 가운데 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여자하고 매일같이 싸움하는 사람이 원만한 사람입니까? 원만한 사람은 동쪽으로 향했다가 서쪽으로 향하더라도 부딪치지 않습니다. 폭대기를 꼭 누르면, 폭 들어갔다가 다른 데에 가서 나오더라도 자기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둥글니다. 태양도 둥글다. 모든 것이 둥글다. 둥근 것은 무엇을 중심삼고 둥글니까? 자기 혼자 있어서는 둥글어질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관계되어 있어야 둥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적 실체, 관계적 권을 집약시킬 하나의 존재물로 등장하는 세계는 원형권을 기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원형을 만들 수 있는 모체가, 조화의 모체가 사랑의 작용입니다. (천성경 3.1.4:43)

22) 절제: 욕망을 억제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

플러스인 마음과 마이너스인 몸이 완전히 하나되면, 플러스인 마음에 하나되는 그 힘은 본연의 창조주의 힘의 권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전능한 창조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력과 생명력에 접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영원히 하나되는 경지에 들어가면 온 천하가 다 보입니다. 여기에 천지가 다 공명합니다. 완전한 마음을 중심삼고 완전한 몸이 공명적으로 일체화하는 입장에 들어가면 모두 통합입니다. 우주가 움직이는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와 비례해서 웃음이 터져 나오고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초연한 힘이 무한히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경지가 있는데, 그 경지는 창조적 이상의 힘이 도달하는 경지입니다. (천성경 4.4.2:16)

23) 온화함: 다른 사람의 약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부드럽게 대하거나 따뜻하게 격려하는 것

사랑을 가진 어머니는 모진 데가 없습니다. 둥글둥글하고 경계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한한 태평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태평이라든가 둥글둥글한 것이 어머니 얼굴보다도 더 멋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얼굴이 아들딸에게는 미인보다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의 미인, 아주머니, 할머니의 3대가 사는 집에는 한 번도 안 가더라도 보기 싫은 어머니 품에는 매일같이 가야 됩니다. (천성경 8.4.3:13)

24) 검약: 돈이나 물건, 자원 따위를 낭비하지 않고 아껴 쓰는 것

나는 일선에 나가 땀 흘리는 전도대원과 식구들을 도와주기 위해 옷과 생활용품을 모아 보냈지만 늘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선교 외에도 사회운동과 봉사활동에 쓰이는 돈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식구들이 간혹 아이들을 위해 초콜릿이나 바나나,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무척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걸 차마 아이들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장롱 안이나 선반에 올려 두었다가 멀리 임지로 떠나는 식구들에게 한 묶음씩 싸서 들려 보냈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138쪽)

25) 충성: 오래도록 헌신적으로 서로를 지원하고 옹호하기로 약속한 개인들의 결속

여러분은 충신이 돼야 합니다. 나라님 대해서 정성 들이는 것이 충신이나? 아닙니다. 백성을 나라님같이 위할 줄 하는 사람이 충신입니다. 효자는 부모를 위해서 정성 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를 위하듯이 형제를 위해 정성 들이는 사람입니다. 성인은 세계 인류를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하고 간 사람입니다. 성자는 세계 사람을 하나님같이 위해 가는 사람입니다. 다릅니다. 역사적인 성인은 지금까지 세계 사람을 위해서 죽어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는 하나님에게도 충성하지만 하나님같이 만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선집 133-242)

26) 정의: 하나님의 법과 성품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망해가면서 하는 말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전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어간다’는 봉사심을 가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민족 반역자로 피 흘리고 죽어갔습니 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이니 히틀러니 하는 사람들은, ‘세계를 내 마음대로 내 앞에 굴복시키겠다’ 하는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이 싫어하며 추방하고 있어요. 그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주 공법에 의한 결론적 입장을 자동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공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선집 105-94)

27) 정돈 : 우리가 관할하는 모든 것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여 적절한 자리에 두고 제 기능을 다하게 하는 것

방을 깨끗이 정돈하고 옷을 거는 것도 원리적으로 걸어야 됩니다. 남자 옷은 오른쪽, 여자 옷은 왼쪽에 걸어야 합니다. 옷을 넣더라도 남자 옷은 위에 넣고, 여자 옷은 아래에 넣는 것이 원리적입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옷을 벗을 때에도 바지를 먼저 벗고 옷옷을 그 위에 놓아야 합니다. 그런 원리적 생활로써 환경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자 신발은 오른쪽, 여자 신발은 왼쪽, 또는 남자 신발은 위, 여자 신발은 아래에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전부 원리적으로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천성경 11.4.3:4-5)

28) 인내 : 기한을 정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태어나서 성혼을 할 때까지 내가 걸어온 길은 하루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니다. 성혼 후에도 갖가지 풍파가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그리고 사랑의 길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생각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 가시밭 길이었지만 그 무엇도 나를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일찍이 예수님과 문 총재를 시험했듯이 나 역시 혹독하게 시험했습니다. 그 가혹하고 지독한 시련을 나는 인내와 헌신으로 이겨 냈습니니다. 한편으로 그때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느낀 때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128쪽)

29) 겸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우주와 주고받으려면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영원히 주고받지 못합니다. 사랑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라고 한 것도 영원히, 완전히 운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항 없이 운동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희생하면 어디든지 통합니다. 어디든지 저항 없이 갑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저항 없이 작용하기 위한 하나의 비법이 위해서 살고 희생봉사 하는 것입니다. (천성경 3.1.4:50)

30) 책임감: 무슨 일이나 맡은 일을 훌륭하게 해냄으로써 다른 이들이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

6천년 역사를 탐감하려고 하니 모든 분야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제1인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어느 분야에 있어서든지 자기가 없어서는 아니 될 책임분야를 찾아야 한다. 그러한 책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밭든 곶든 간에 버릴 수 없다. 그 이유는 그 사람만이 감당할 그 분야의 사명을 다른 누가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뜻길 119쪽)

31) 협동: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것

발왕산 산꼭대기에 오르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귀한 나무가 있습니다. 나는 그 나무를 ‘마유목’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한 몸통이 되어 마치 한 나무처럼 살아갑니다. 수백 년 된 야광나무는 어머니이고, 그 품 안에서 자란 마가나무는 아들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사이좋게 살아가는 모자나무입니다. 야광나무가 오래되어 속이 텅 비자 그 안에 새가 마가나무 씨앗을 떨어뜨려 마가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새끼나무로 터를 잡았습니다. 야광나무는 마치 아기를 양육하듯 마가나무에게 영양분을 제공하며 품안에서 점차 키워 나갔습니니다. 마가나무는 차츰 자라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마치 어머니를 봉양하듯 야광나무를 보살피며 공생합니다. 허공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각각 꽃과 열매를 맺습니니다. (평화의 어머니 305쪽)

32) 용기 : 두려움을 이겨내고 옳은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마음

의욕을 갖고 모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단호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용기가 있더라도 그것이 무모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사리를 잘 판단해 가지고 옳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준비한 것이 여기에서 파탄된다면 너무나 애석하다는 것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해 가지고 여기에서 후퇴해야 하는 패자의 서러운 입장에 선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입장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백배하며 생명도 개의치 않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승리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24-4)

33) 자존감 :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우리는 모두 위대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무런 뜻도 없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361쪽)

34) 끈기 : 목적의식을 가지고 초지일관 꾸준히 나아가는 자세

줄다리기를 할 때 갑자기 힘을 쓰는 사람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호랑이 힘내듯 갑자기 달려드는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버티다 말면 안 됩니다.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이기는 것이요, 지옥 가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이깁니다. (말씀선집 64-57)

35) 유연성 :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

하늘은 우리 인류가 미워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탄, 악을 지배해 나오는 주인공, 하나님을 배반 하여 나오는 주인공을 쳐서 분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을 잡아다가 죽음의 가마솥에 처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유린하고 이 땅을 어지럽혀 나오는 사탄을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이 길을 떠나라. 이 길을 피하여 나가서 싸워라. 원수시하라.’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진 자에게는 가면 갈수록 너는 여기서 떠나야만 된다고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천성경 8.3.1:6)

36) 용서 :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품는 마음

통일운동의 가장 근본은 ‘위하는 삶’입니다. 사지의 경지에서 자신을 희생함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댄버리정신입니다. 댄버리정신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처지에서도 하늘의 뜻에 따라 희생하고 용서하며 더 큰 가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156쪽)

37) 창의성 :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것

이상의 세계는 창조의 목적이 실현되어야 하는 세계요, 신을 닮아야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사랑이 넘치는 조화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원하고 있으며, 부단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비단 제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창의적인 활동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항상 새로운 것을 창안해 내고 계획하며 개선하고 그리고 생산하는 등의 활동 전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은 통일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도 통일적이어야 하며 사회생활도 통일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즉 사랑하면서 창조하고, 창조하면서 사랑하는 통일적인 인간, 통일적인 세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화경 5-1, 714 쪽)

38) 존중: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경의로 대하는 것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찮아지면 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귀섭리를 해 나오는 데에는 대한민국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인류를 다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인 무리라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심에서 우리나라 오는 마음을 갖고 대할 때 인연 중에 최고의 인연을 결실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천성경 9.3.1:16)

39) 공감: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

여러분은 충신이 돼야 합니다. 나라님 대해서 정성 들이는 것이 충신이야? 아닙니다. 백성을 나라님같이 위할 줄 아는 사람이 충신입니다. 효자는 부모를 위해서 정성 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를 위하듯이 형제를 위해 정성 들이는 사람입니다. 성인은 세계 인류를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하고 간 사람입니다. 성자는 세계 사람을 하나님같이 위해 가는 사람입니다. 다릅니다. 역사적인 성인은 지금까지 세계 사람을 위해서 죽어간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는 하나님에게도 충성하지만 하나님같이 만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선집 133-242)

40) 분별 :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

평소에 느낌의 몇 퍼센트가 적중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생활과정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의 몇 퍼센트는 맞는다, 몇 퍼센트는 틀림없다’ 하는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입장에 서지 않고는 하나님이 같이하고 계시는지, 악이 같이하고 있는지 분석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런 신앙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태도를 키워 나가면 틀림없이 정확한 느낌이 체화되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길을 나설 때 기도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첫 걸음을 내디딜 때, 이 길이 어떤 길이나, 좋은 길이나, 가면 하나님에게 좋을 수 있는 길이나, 험잡한 길이나, ‘아 이길 좋다, 나쁘다’ 하는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쁘다’ 할 때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선집 40-288)

품성교육 주제					
순	품성	정의	순	품성	정의
1	경청	상대방의 말이나 일에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마음의 태도	21	온유	성격, 태도 따위가 평안하고 부드러움
2	배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주는 것	22	절제	욕망을 억제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
3	봉사	보상 없이 섬기거나 도와주는 행위. 사랑하며 위하는 것	23	온화함	다른 사람의 약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부드럽게 대하거나 따뜻하게 격려하는 것
4	신뢰성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	24	검약	돈이나 물건, 자원 따위를 낭비하지 않고 아껴 쓰는 것
5	만족	현재와 미래의 행복에 필요한 것이 내 속에 있다고 깨닫는 것	25	충성	오래도록 헌신적으로 서로를 지원하고 옹호하기로 약속한 개인들의 결속
6	솔선	남보다 앞장서서 먼저 함	26	정의	하나님의 법과 성품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
7	조심성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쓰는 성질이나 태도	27	정돈	우리가 관할하는 모든 것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여 적절한 자리에 두고 제 기능을 다하게 하는 것
8	만물 주관	만물의 가치를 알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여 그 만물 스스로가 인간의 주관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겨 받도록 하는 것	28	인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9	감사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준 혜택에 대해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29	겸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10	효성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는 사랑.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는 정성	30	책임감	무슨 일이나 맡은 일을 훌륭하게 해냄으로써 다른 이들이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
11	근면	맡은 일을 총력을 다해 신속하고 능숙하게 해내는 것	31	협동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것
12	과단성	정확한 사실, 지혜로운 조언, 명확한 목표를 근거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것	32	용기	두려움을 이겨내고 옳은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마음
13	의지력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 나가는 힘	33	자존감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14	관용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34	끈기	목적의식을 가지고 초지일관 꾸준히 나아가는 자세
15	지혜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35	유연성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
16	신중	지혜를 쓰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36	용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품는 마음
17	경각심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	37	창의성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것
18	진실성	참되고 정확한 사실을 삶과 말로 전달하는 것	38	존중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경의로 대하는 것
19	열성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통해 나타나는 것	39	공감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
20	순종	나의 책임자의 지시나 소원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	40	분별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

출처 : 천일국 가정예배 품성교재

II | 기본신앙교육

01 기본신앙교육 소개

기본신앙교육은 『미래의 희망 퓨어워터』 제3부 2장 「참된 자녀의 길 -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늘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을 핵심으로, 정성의 삶, 감사의 삶, 모심의 삶, 천일국 생활을 실천하는 내용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02 미래의 희망 퓨어워터 '기본신앙교육'

1.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

- 1) 하늘부모님을 대상으로 삼고 가는 길 '신앙'
- 2) 신앙은 생활
- 3) 신앙의 목적은 가정구원
- 4) 체휼하는 신앙생활

2. 정성을 드리는 자녀

- 1) 지성감천(至誠感天) :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
- 2) 정성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회개'와 '겸손'
- 3) 정성을 드리는 이유 : 하늘부모님만을 대하기 위하여
- 4) 생활 속의 정성
 - (1) 예배 생활
 - (2) 기도 생활
 - (3) 헌금, 십일조
 - (4) 경배, 금식
 - (5) 훈독(원리, 말씀)

3. 감사의 생활을 하는 자녀

- 1) 감사하는 생활
- 2)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늘부모님
- 3) 감사의 반대는 불평불만, 불평불만은 사탄의 것

4. 모심의 생활을 하는 자녀

- 1) 모심의 시대
- 2)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생활 속에서 모시는 생활 중요
- 3) 하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생활, 보고생활

5. 퓨어워터의 삶(정체성, 소명)

- 1) 위하는 삶을 실천하는 퓨어워터
- 2) 효정을 다하는 퓨어워터
- 3) 퓨어워터 생애의례 '성결식'
- 4)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퓨어워터

6. 천일국 생활을 하는 자녀

- 1) 4대 성물의 의미
- 2) 천일국 명절과 기념일
 - (1) 하늘부모님의 날
 - (2) 참부모님 탄신일
 - (3) 참부모의 날
 - (4) 참자녀의 날
 - (5) 참만물의 날
 - (6) 천주통일국개천일
 - (7) 칠일절(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의 날)
 - (8) 칠팔절(천지부모천주안식권 선포의 날)

03 기본신앙교육 세부내용

1.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

1)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 소주제

- (1) 하늘부모님을 대상으로 삼고 가는 길 '신앙'
- (2) 신앙은 생활
- (3) 신앙의 목적은 가정구원
- (4) 체휼하는 신앙생활

2)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 교육목표

- (1) 신앙은 하늘부모님을 대상으로 삼고 가는 길이며,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알고 닮아가는 '자발적인' 과정(科程)임을 안다.
- (2) 신앙은 영인체(생심)에 중심을 두고 가는 과정임을 안다.
- (3) 신앙생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생활 습관을 하늘부모님의 것으로 바꾸어야 함을 안다.
- (4) 신앙은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가정을 이루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신앙임을 안다.

2. 정성을 드리는 자녀

1) '정성을 드리는 자녀' 소주제

- (1) 지성감천(至誠感天) :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
- (2) 정성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회개'와 '겸손'
- (3) 정성을 드리는 이유 : 하늘부모님만을 대하기 위하여
- (4) 생활 속의 정성
 - ① 예배 생활 / ② 기도 생활 / ③ 헌금, 십일조 / ④ 경배, 금식 / ⑤ 훈독 (원리, 말씀)

2) '정성을 드리는 자녀' 교육목표

- (1)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찾아가는 과정은 '정성'의 과정임을 안다.
- (2) 인간은 하늘부모님의 환경과 사탄의 환경, 두 환경을 대(對)하고 있음을 안다.
따라서, 하늘부모님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성을 통해 하늘부모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함을 안다.
- (3) 하늘부모님은 정성들인 것을 받으심을 안다.
- (4) 생활 속 정성이란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 훈독, 경배 등을 통해 할 수 있음을 안다.
- (5) 몸이 원하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 몸을 쳐야 함을 안다.
- (6) 정성의 기본적인 마음자세는 '회개'와 '겸손'임을 안다.

3. 감사의 생활을 하는 자녀

1) '감사의 생활을 하는 자녀' 소주제

- (1) 감사하는 생활
- (2)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늘부모님
- (3) 감사의 반대는 불평불만, 불평불만은 사탄의 것

2)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 교육목표

- (1) 종교의 본질은 감사와 만족임을 안다.
- (2) 하나님은 감사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심을 안다.
- (3) 작은 일에 감사하는 신앙이 큰 축복으로 연결됨을 안다
- (4) 감사의 반대는 '불평불만'이며 '불평불만'은 사탄의 것임을 안다

4. 모심의 생활을 하는 자녀

1) '모심의 생활을 하는 자녀' 소주제

- (1) 모심의 시대
- (2)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생활 속에서 모시는 생활 중요
- (3) 하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생활, 보고생활

2) '모심의 생활을 하는 자녀' 교육목표

- (1) 모심의 시대에 대하여 안다.
- (2)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생활 속에서 모시는 '모심생활'이 중요함을 안다
- (3)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종적), 부모와 목회자를(횡적) 잘 모셔야 함을 안다.
- (4) 가장 기본적인 모심의 방법은 '보고생활'임을 안다.
- (5) 모심의 태도는 예배시간의 예절을 지키는 것 (시간엄수,복장단정), 식사시간에 보고를 드리는 것임을 안다.

5. 퓨어워터의 삶(정체성, 소명)

1) '퓨어워터의 삶' 소주제

- (1) 우리는 퓨어워터 - 퓨어워터 생애의례 '성결식'
- (2) 위하는 삶을 실천하는 퓨어워터
- (3) 효정을 다하는 퓨어워터
- (4)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퓨어워터

2) '퓨어워터의 삶' 교육목표

- (1) 퓨어워터의 정체성에 대하여 안다.
 - 퓨어워터는 '순수한 물'로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순수 혈통의 2세, 3세, 4세 자녀임을 안다.
 - 퓨어워터의 가장 중요한 생애 의례에는 '성결식'이 있음을 안다
- (2) 퓨어워터는 '말은 물은 흘러야 한다'는 말씀처럼 주변 친구들에게 위하는 삶을 실천해야 함을 안다.
- (3) 퓨어워터는 하늘부모님 참부모님께 효정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임을 안다.
- (4) 퓨어워터는 미래세대가 살아갈 터전이 '자연'임을 알고 하늘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인 '자연 만물'을 사랑하고, 아끼며, 자연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음을 안다.

6. 천일국 생활을 하는 자녀

1) '천일국 생활을 하는 자녀' 소주제

- (1) 4대 성물의 의미
- (2) 천일국 8대 명절
 - ① 하늘부모님의 날 : (천력) 1968.01.01
 - ② 참부모님 탄신일 : 참아버님 (천력) 1920.01.06 / 참어머님 (천력) 1943.01.06
 - ③ 참부모의 날 : (천력) 1960.03.01
 - ④ 참자녀의 날 : (천력) 1960.10.01
 - ⑤ 참만물의 날 : (천력) 1963.05.01
 - ⑥ 천주통일국개천일 : (천력) 1988.10.03
 - ⑦ 칠일절(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의 날) : (천력) 1991.07.01
 - ⑧ 칠팔절(천지부모천주안식권 선포의 날) : (천력) 1997.07.07

2) '모심의 생활을 하는 자녀' 교육목표

- (1) 4대 성물에는 천성염, 천성주, 천성토, 천성초가 있음을 알며, 각각의 의미를 안다.
- (2) 천일국 명절과 기념일에 대한 의미를 통해 퓨어워터로서 천일국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다.

Ⅱ | 품성교육을 중심한 기본신앙교육 커리큘럼

01 품성교육을 중심한 기본신앙교육 커리큘럼 안내

『미래세대 기본신앙교육 커리큘럼』은 매월 1~2개의 품성을 중심으로, 그에 따른 기본신앙의 내용을 실천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1주차와 2주차는 성화학생과 효동부가 함께 사용하는 공통 커리큘럼이며,
- 3주차는 효동부(초등학생)를 위한 생활 실천 중심의 동화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2 2025년 하반기 커리큘럼 (9월~12월)

월	품성	기본신앙	주	기본신앙교육 세부 내용	품성 세부내용
9월	공감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	1	하늘부모님을대상으로 삼고 가는 길 '신앙', 신앙은 생활	공감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
			2	신앙의 목적은 가정구원, 체휼하는 신앙생활	
			3	효동 생활동화: 하늘부모님의입장과 감정을 느끼고 이해해요	
10월	감사	감사의 생활을 하는 자녀	1	감사하는 생활 : 종교의 본질은 감사와 만족 감사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시고 축복하시는 하늘부모님	감사 하늘부모님과다른 사람들이내 삶에 준 혜택에 대해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표현하는 것
			2	감사의 반대는 불평불만, 불평불만은 사탄의 것 작은 일에 감사하는 신앙이 큰 축복으로 연결됨	
			3	효동 생활동화: 내가 처해진 상황에 감사하고 만족해보아요	
11월	겸손	정성을 드리는 자녀1	1	지성감천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	겸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2	정성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회개'와 '겸손'	
			3	효동 생활동화: 회개와 겸손으로 정성을 드려요	
12월	끈기	정성을 드리는 자녀2	1	정성을 드리는 이유 1) 인간은 언제나 하늘부모님과사탄의 환경을 대(對)함 2) 정성은 하늘부모님만대(對)할 수 있는 만남'	끈기 목적의식을 가지고 초지일관 꾸준히 나아가는 자세
			2	정성들인 것을 받으시는 하늘부모님- '생활속 정성' 안내	
			3	효동 생활동화: 하늘부모님과참부모님께 정성을 드려요	

03 2026년 커리큘럼 (1월~12월)

월	품성	기본신앙	주	기본신앙교육 세부 내용	품성 세부내용
1월	열성 절제	정성을 드리는 자녀3 '생활 속 정성'	1	기도생활: '아주'의 의미, 기도드리는 방법	열성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통해 나타나는 것 절제 욕망을 억제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
			2	경배 정성, 금식 정성	
			3	효동 생활동화: 기도생활, 경배정성을 드리는 효동	
2월	효성	천일국 8대명절	1	천일국 명절 - 하늘부모님의 날 (1.1)	효성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는 사랑.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는 정성
			2	천일국 명절 - 참부모님 탄신일 (1.6)	
			3	효동 생활동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효정을 다해요	
3월	봉사	정성을 드리는 자녀4 '생활 속 정성'	1	예배생활	봉사 보상없이 섬기거나 도와주는 행위. 사랑하며 위하는 것
			2	헌금, 십일조 생활	
			3	효동 생활동화: 예배생활, 헌금생활을요	
4월	책임감	퓨어워터 생애의례 '성결식'	1	천일국 명절 - 참부모의 날	책임감 무슨 일이나 맡은 일을 훌륭하게 해냄으로써 다른 이들이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
			2	퓨어워터 생애의례 - 성결식	
			3	효동 생활동화: 성결식을 지금부터 준비해요	
5월	의지력	정성을 드리는 자녀5 '생활 속 정성'	1	훈독생활 (말씀은 흐른다, 퓨어워터로서 말씀 전하기)	의지력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꾸밈게 지켜나가는 힘
			2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	
			3	효동 생활동화: 퓨어워터로서 말씀을 전해요	
6월	만물 주관	퓨어워터의 삶1	1	천일국 명절 - 참만물의 날	만물주관 만물의 가치를 알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여 그 만물 스스로가 인간의 주관을 받 는 것을 기뻐하고 즐겨 받도록 하는 것
			2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퓨어워터	
			3	효동 생활동화: 자연환경을 사랑해요!	
7월	협동	모심의 생활을 하는 자녀1	1	모심의 시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는 생활	존중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경의로 대하는 것
			2	하늘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생활	
			3	효동 생활동화: 생활 속에서 참부모님을요	
8월	끈기	모심의 생활을 하는 자녀2	1	천일국 명절 - 칠일절, 칠팔절	진실성 참되고 정확한 사실을 삶과 말로 전달하는 것
			2	모심의 태도 - 예배예절, 식사 보고기도, 보고생활	
			3	효동 생활동화: 보고생활을 해요	
9월	분별	천일국 생활을 하는 자녀	1	4대성물 - 천성주, 천성염	분별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
			2	4대성물 - 천성토, 천성초	
			3	효동 생활동화: 천일국 국민의 생활을 해요	
10월	순종	퓨어워터의 삶2	1	퓨어워터의 정체성과 소명	협동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것
			2	퓨어워터를 대하시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심정	
			3	효동 생활동화 자랑스러운 퓨어워터가 되어요	
11월	지혜 신중	천일국 8대명절	1	천일국 명절 - 참자녀의 날	자존감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2	천일국 명절 - 천주통일국개천일	
			3	효동 생활동화: 참자녀가 되기 위해 다짐해요	
12월	충성 협동	퓨어워터의 삶3	1	효정의 도리를 다하는 퓨어워터 (종적인 관계)	충성 오래도록 헌신적으로 서로를 지원하고 옹호하기로 약속한 개인들의 결속
			2	위하는 삶을 실천하는 퓨어워터 (횡적인 관계)	
			3	효동 생활동화: 효정과 위하는 삶을 실천해요	

제4장 | 미래세대 교육 커리큘럼 활용 가이드

- I. 효동예배 활용 가이드
- II. 성화예배 활용 가이드

I | 효동예배 활용 가이드

예배 구성 및 운영 방법

말씀영상 시청 전 : 영상 집중 미션

- 오늘의 주제 '품성', '기본신앙'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며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 예) 오늘은 00를 주제로 재미있는 말씀 영상을 볼 예정이에요.
- 예) 영상 끝난 후 '퀴즈가 있으니 우리 모두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 보아요!

말씀영상 시청 후 : 영상 내용 리뷰

- 영상에서 나왔던 시각적인 그림 이미지, 반복적으로 나왔던 단어 등을 언급합니다.
- 예) "어떤 장면이 가장 생각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였나요?"
- 품성을 중심한 기본신앙의 주제가 실생활에 적용될수 있도록 질문합니다
- 예) “주인공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요?”

활기찬 율동찬양으로 시작하기

- 신나는 율동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엽니다.
- 찬양은 말씀 주제와 연계되어 어린이들의 마음을 열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찬양이 끝난 후 찬양곡의 내용과 오늘의 주제에 대해 언급합니다.

말씀영상 시청

- 모두가 다같이 잘 시청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여 영상을 시청합니다.

놀이와 활동을 통한 연계

- 이야기와 연결된 만들기, 그리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 활동으로 품성을 몸으로 익히도록 도와줍니다.

II | 성화예배 활용가이드

예배 구성 및 운영 방법

성화예배는 퓨어워터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신앙을 내면화하는 청소년 시기 예배입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말씀을 이론과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 타인의 생각을 들으면서 품성과 신앙을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배 구성 및 운영 방법

매 주제에 맞는 설교안은 품성교육과 기본신앙교육(모심감사정성실천)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교자는 성화의 눈높이에 맞는 예시나 시사적 내용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퓨어워터로서의 삶, 천일국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사명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 PPT를 활용한 시각 자료 및 나눔 유도

핵심 말씀과 품성 개념을 시각화하여 전달하며, 발표형식이 아닌 대화형 나눔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질문 예시)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이번 주 어떤 품성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

예배시간에는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신앙’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예배 중 또는 마무리에 “이 주제와 연결된 이번 주 실천 목표”를 함께 세우고, 실천 일지를 작성하거나 다음 주 나눔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제5장 | 품성과 신앙이 자라는 가정예배 - 부모 가이드

I. 미래세대 가정예배의 중요성

II. 품성을 중심한 기본신앙교육 콘텐츠 가정예배 활용법

I | 미래세대 가정예배의 중요성

왜 효동과 성화학생에게는 '가정예배'가 중요할까요?

가족과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은 30분 ~ 1시간

2024년 KBS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이 초4~고3 학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은 **하루 평균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상당수는 **30분 이하**라고 답하였습니다. 특히, 대화 시간이 길수록 결혼과 가족을 더 소중하게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대화 시간이 짧을수록 자아존중감, 가족유대감, 삶의 만족도 또한 낮은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화 시간이 긴 아이일수록 결혼과 가족을 더 소중하게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족 대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가정예배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삼은 가족간의 귀한 소통 시간**이며, 자녀의 인성과 신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기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는 더욱 중요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무엇을 함께 하느냐는 더욱 중요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정서적 유대는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예배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생활속에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배'라면 갖추어야 하는 형식과 틀이 아닌, 가족구성원이 만들어가는 가족만의 신앙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간의 다양한 생각을 함께 이야기 하며 세대간의 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가까운 '신앙의 모델'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에서 보여지는 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부모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기도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본보기가 됩니다. 꼭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예배에 마음을 담는 모습 자체가 가장 큰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는 부모가 신앙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닌, '함께하는 시간'

부모님들이 종종 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하면 우리 애가 지루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꼭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엄마도 잘은 모르지만, 같이 생각해보자”, “아빠는 이 장면이 참 좋았어”라고 말하는 함께 고민하는 태도가 자녀에게 더 깊은 신앙의 울림을 줍니다. 말씀이 끝난 후, “우리 가족은 이번 주에 어떤 마음을 가져보면 좋을까?”처럼 함께 적용점을 찾아가는 예배는 자녀에게 ‘신앙은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가끔 예배 분위기가 산만해지고, 아이가 집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배를 이어가려는 부모의 의지 자체가 아이에게 메시지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품성'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품성은 일상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수련회나 특별한 행사도 의미는 있지만, 일상 속 대화의 힘을 대신하진 못합니다. 수련회에서 뜨겁게 울며 기도한 자녀가 몇 주 뒤 다시 조용해지는 모습을 보며 부모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신앙은 작은 대화와 반복적인 언급, 생활 속 언어와 행동 속에서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감사했던 일 하나씩 말해볼까?”, “오늘 힘들었겠구나, 그럴때 하늘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번 주에는 참을성이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니?” 이런 질문은 아이가 신앙을 ‘현실적인 언어’로 말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합니다. '품성'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게 합니다. 가정예배는 이러한 대화가 가장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정예배는 “우리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는 가족”라는 정서적 기억을 자녀에게 남기며, 이러한 정서적경험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가정예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로, 찬양 한 곡, 말씀 한 구절, 짧은 나눔과 기도처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품성과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에서 보여지는 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그러한 작은 일상들이 쌓여, 우리 자녀들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닮고, 퓨어워터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내면의 힘을 지닌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II | 품성을 중심한 기본신앙교육 콘텐츠 가정예배 활용법

가족 구성에 따른 가정예배 활용 안내

『미래세대 교육 커리큘럼』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연령대별 자녀의 발달 특성과 신앙 이해도에 따라, 가정에서의 예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가정마다 자녀의 연령과 구성 형태는 다양합니다. **효동 연령대 자녀만 있는 경우, 성화학생과 효동이 함께 있는 경우, 성화학생만 있는 경우에 따라 예배의 구성과 접근 방식에도 차이가 필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각 상황에 적합한 실천 방법과 부모의 역할, 그리고 자녀와의 신앙적 소통을 위한 구체적 예시를 함께 제시하여, 모든 가정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01 효동의 자녀만 있는 가정예배

1) 가정용 활동지 활용

월 1회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정용 활동지’를 제공합니다. 이 활동지는 효동의 다양한 연령대에 맞추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자녀가 말씀을 이해하고, 활동을 통해 품성을 중심한 기본신앙을 그림 혹은 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유치부~유년부용]

[유년부~초등부용]

활동지는 자녀 혼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시간’입니다.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여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해보세요.

[가정용 활동지 - 부모가이드]

1) 부모용 활동지, 자녀용 활동지를 준비하여 각각 작성하기.

- 활동지를 활용할 때에는 자녀에게만 하도록 부모가 지도하는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와 '같은 위치'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모가 먼저 활동지를 작성하고 진심을 담아 표현할 때, 자녀는 평가받는 느낌이 아닌 신뢰받고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 이는 자녀에게 신앙과 표현에 대한 자율성과 존중의 분위기를 형성하며, 자연스러운 소통의 문을 열어줍니다.

2) 완성 후 서로 이야기 나누기

- 다 끝난 뒤 서로의 활동지를 보여주고, 각자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작성했는지 이야기 나눕니다.
-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이 색을 고른 이유가 있을까?”와 같이 가볍게 물어보세요.

3) 자녀를 존중하는 피드백

- 색칠이나 표현이 예상과 달라도 정답을 정하지 않고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 “이 색이 어울린다고 생각했구나.” “이렇게 표현한 건 네 마음이 담겨 있겠네.”와 같이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4) 정답보다 ‘이해’를 중심으로

- 활동지에서 답이 다르거나 엉뚱해 보여도 틀렸다고보다 ‘그렇게 생각한 마음’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모가 먼저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해주면 아이도 편안하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5) 왜?보다 ‘어떻게?’로 질문하기

- 왜 그렇게 했어?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라고 질문해 보세요.
- ‘왜’는 정답을 말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어떻게’는 자녀가 스스로 생각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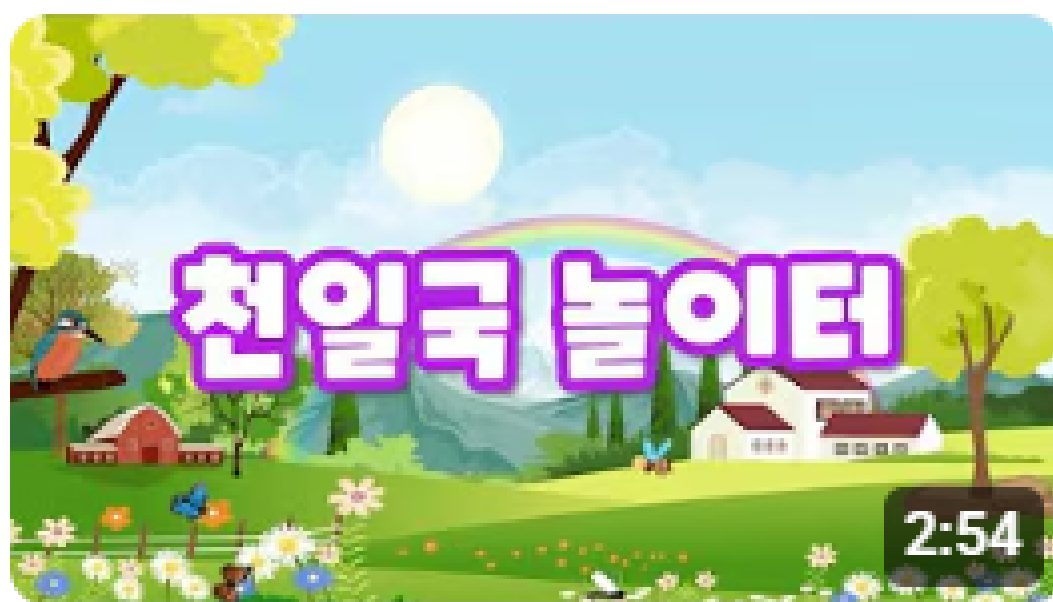
2) 율동찬양곡 활용

월 3회 품성을 중심한 기본신앙과 관련된 율동찬양곡이 스토리 말씀영상과 함께 제공됩니다.

율동 영상을 통해 다양하게 가정예배에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제공된 찬양 및 율동 영상은 유튜브 '효동TV'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동예배 동요 & 율동 영상 ▶ 모두 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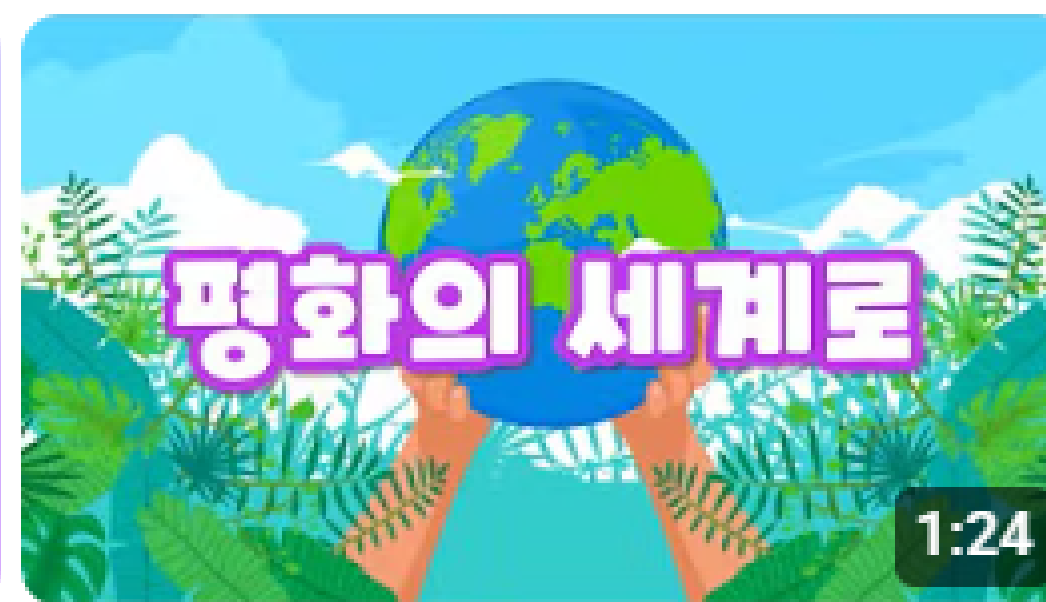
천일국 놀이터 | 효동예배 동요

효동TV
조회수 1회 · 6시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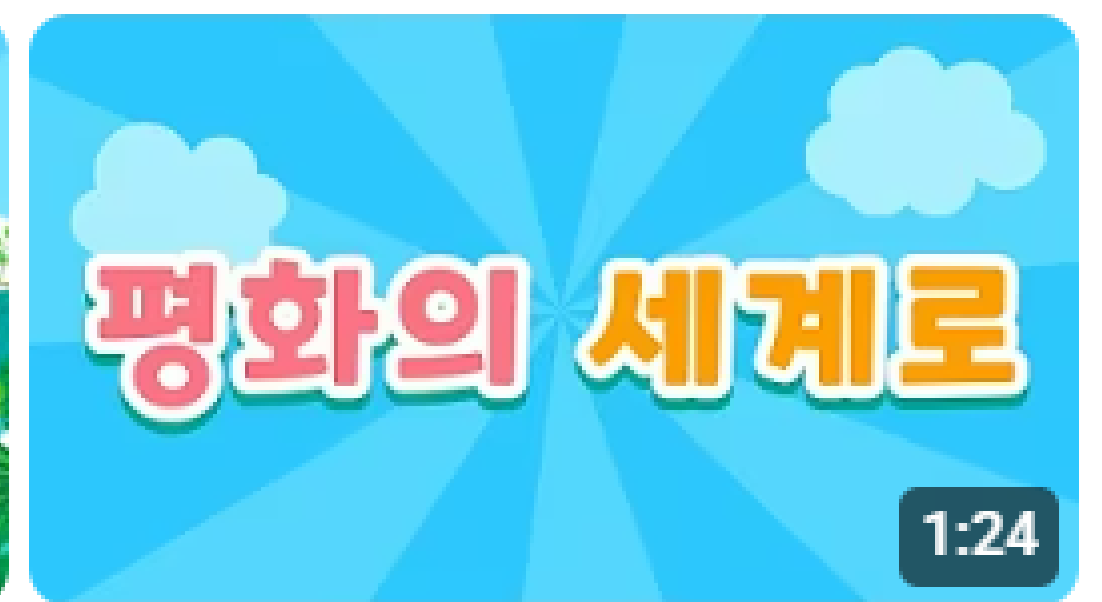
천일국 놀이터 | 효동예배 율동

효동TV
조회수 없음 · 5시간 전



평화의 세계로 | 효동예배 동요

효동TV
조회수 49회 · 6일 전



평화의 세계로 | 효동예배 율동

효동TV
조회수 1.1천회 · 1년 전

[율동찬양곡 활용 - 부모가이드]

1. 아빠표·엄마표·자녀표 율동 만들기 (율동은 보지 않고 소리만 틀기)

- 찬양 영상의 '소리'만 먼저 듣고, 각자 자신만의 율동을 창작해 봅니다.
- 아빠표 율동, 엄마표 율동, 자녀표 율동을 차례로 보여주며 함께 웃고 따라 해보세요.
- 정해진 동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창의성과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 부모가 먼저 유쾌하게 참여하면 자녀도 마음을 열고 예배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됩니다.
- 이러한 활동은 가정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2. 율동 찬양 영상 따라 해보기

- 매주 제공되는 찬양 영상의 율동을 가족이 함께 보며 그대로 따라 해보는 활동입니다.
-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웃고 움직이는 경험 자체입니다.
- 부모가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자녀도 자연스럽게 몸을 열고 참여하게 됩니다.
- 율동은 신앙 내용을 몸으로 표현하는 창구이자, 자녀에게 긍정적 신앙 기억을 남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따라 하기 어려운 동작은 가족끼리 서로 가르쳐주며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3) 스토리 말씀영상 활용

스토리 영상 말씀은 1주차, 2주차는 품성을 중심한 기본신앙에 대한 내용이 스토리 말씀영상으로 제공되며 3주차에는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영상을 본 후 연령대에 맞게 다음과 같은 '품성 관련 질문', '기본신앙 관련 질문', '생활 속 실천' 관련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 말씀영상 활용 - 부모가이드]

1. 품성 중심 질문

품성 교육은 연령이 어릴수록 ‘느낌’과 ‘행동’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일수록 ‘이유’, ‘상황 판단’, ‘자기 경험’과 연결해 묻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유치부 (5~7세)	유년부 (초1~초3)	초등부 (초4~초6)
감정 및 구체적 장면 중심 질문	주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질문 범위를 넓혀감	추상 개념을 판단하고, 자기 경험과 연결하며 사고력 중심 질문
“퓨어가 오늘 보여준 착한 마음은 뭐였어?” “퓨어가 친구한테 어떻게 했지?” “너도 그런 착한 마음 해본 적 있어?” “그렇게 하면 하늘부모님이 기뻐하실까?”	“퓨어가 보여준 품성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야?” “오늘 배운 친절함(책임감, 정직 등)을 학교에서도 할 수 있을까?” “그 품성을 우리 가족이 함께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퓨어가 실천한 품성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품성을 실천했을 때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 “누군가 이 품성을 지키지 않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2. 기본신앙 중심 질문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한 질문은 자녀가 신앙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삶에 연결하도록 돕습니다. 정답보다 마음을 나누는 대화로, 부모의 따뜻한 공감이가장 큰 신앙교육이 됩니다.

유치부 (5~7세)	유년부 (초1~초3)	초등부 (초4~초6)
신앙을 인식하는 ‘기초 감정’에 집중한 짧고 반복 가능한 질문	기도·예배·감사 등 구체적 실천과 마음 상태에 주목	신앙 행위와 내면 의식을 연결하고 신앙 정체성을 스스로 표현하도록 유도
“퓨어가 오늘 보여준 착한 마음은 뭐였어?” “퓨어가 친구한테 어떻게 했지?” “너도 그런 착한 마음 해본 적 있어?” “그렇게 하면 하늘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퓨어가 하늘부모님께 어떤 정성을 드렸지?” “너는 하늘부모님께 어떤 걸 감사드리고 싶어?”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하늘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은 너에게 어떤 의미일까?” “정성을 들인다는 건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해?” “오늘 하루 중 하늘부모님을 가장 의식했던 순간은 언제였?”

02 성화학생 자녀만 있는 가정예배

1) 설교안 활용 - 부모가이드

월 2회 제공되는 성화부 설교안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배에서 사용한 설교안이라도, 가정예배 시간이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에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수 있도록 간단한 활용(안) 가이드를 함께 제공합니다.

[말씀설교안 활용(안) - 부모가이드]

[가족설교안 퀴즈]

예배 시간에 이미 사용한 설교안도, 가정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설교안을 읽고, 서로 퀴즈를 내며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활동입니다.

1. 가족이 함께 설교안을 읽기

각자 한 문단씩 돌아가며 낭독해 보세요. 부모님이 먼저 읽어주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설교안 퀴즈를 내기

퀴즈는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말씀을 떠올려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 “이 말씀에서 참부모님은 어떤 마음을 강조하셨을까?”
- “방금 나온 단어 중에 ‘하늘부모님’이랑 관련 있는 건 뭐였을까?”

3. 경쟁보다는 서로의 생각을 들어주는 분위기 형성

“그렇게 생각했구나”, “와 그건 못 봤는데 좋다!” 같은 격려 한 마디가 아이의 신앙을 살려줍니다.

Tip. 퀴즈 끝나고 좋은 질문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실천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볼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너한테는 어떤 느낌으로 남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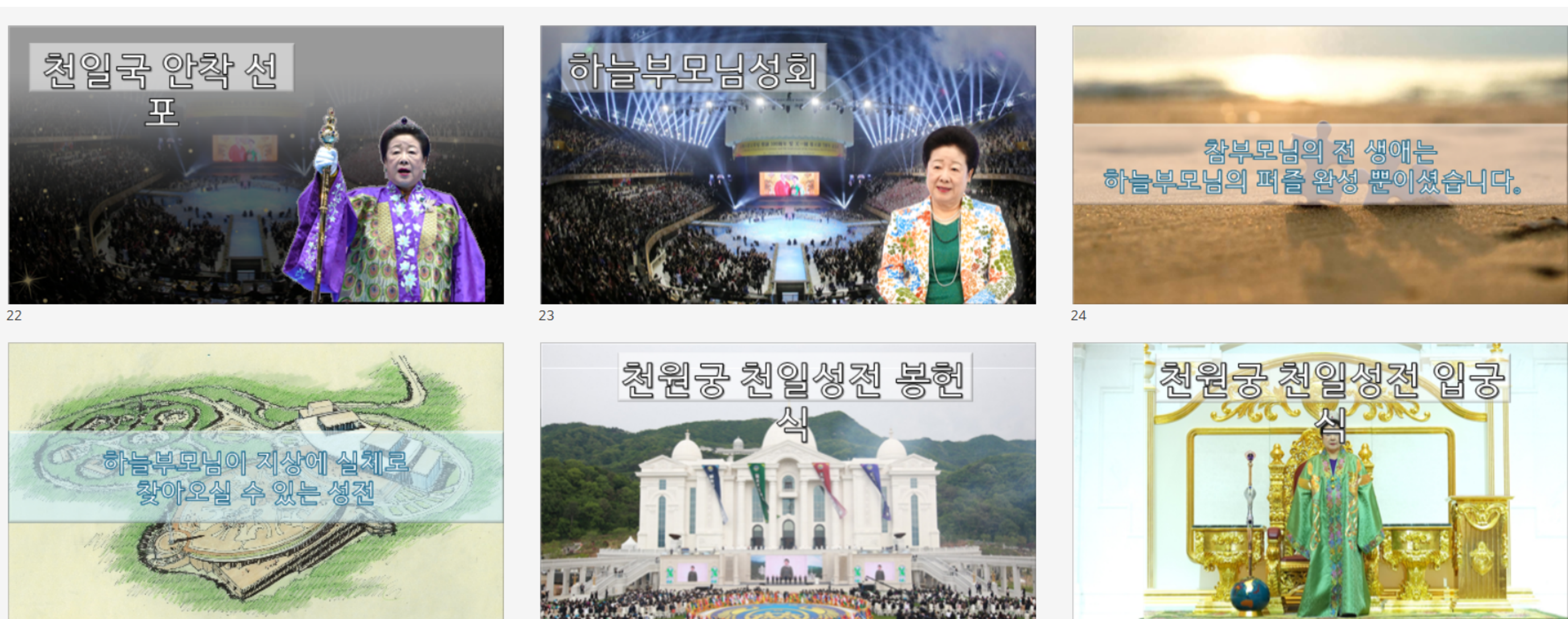
[설교 PPT 활용(안) - 부모가이드]

[아는 만큼 설명하기]

예배 시간에 이미 사용한 설교안도, 가정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설교안을 읽고, 서로 퀴즈를 내며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활동입니다.

STEP 1. PPT 장면 고르기

- PPT 파일을 가족 모두 함께 천천히 넘겨봅니다.
- 각자 마음에 드는 장면을 2장씩 골라주세요. 그림, 사진, 또는 글귀 중 어느 것이든 선택 가능!



STEP 2. 아는 만큼 이야기하기

설명은 짧고 간단하게, 한 사람당 30초~1분 정도 말을 합니다.
선택한 장면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느낀 만큼 자유롭게 말해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어도 되며 편하게 말하면 됩니다.

STEP 3. 가족이 서로 들어주기

각자의 설명이 끝난 후, “그렇게 느꼈구나”, “좋은 생각이야!” 같은 말로 격려해 주세요.
다른 사람 설명은 끝까지 들어주기 : 혹시 틀려도 괜찮아요. 서로 “아~ 그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격려해 주세요. 마지막에는 오늘 나눈 장면 중 가족 대표 그림 한 장을 골라서 벽에 붙여보세요.
한 주간 기억에 남을 신앙 상징이 됩니다!

Tip. 활동 시 주의사항

부모는 평가자가 아니라 동참자 : 자녀의 말을 고치거나 해석하려 하기보다, 먼저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부모도 같은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03 효동과 성화학생이 함께 있는 가정예배

효동(초등 저·중학년)과 성화학생(중1~고1)이 함께 있는 가정은 자녀의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각 자녀에게 맞춰 가정예배로 활용할지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연령차이를 고려한 ‘효동+성화 혼합 가정’ 맞춤 가정예배 활용 가이드입니다.

1. 말씀은 함께, 표현은 각자 다르게

- 기본신앙과 품성 주제는 성화와 효동이 같은 말씀과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 단, 영상 시청 후 나눔과 실천은 연령에 맞게 조정해 주세요.
- 효동 자녀는 영상 속 퓨어의 말이나 행동을 중심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 “퓨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등 간단한 질문으로 나눔
- 성화 자녀는 “이 품성을 학교에서 실천하면 어떤 상황이 떠오를까?”, “정성의 의미를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 등 깊이 있는 질문 유도

2. 실천 활동은 ‘공동’과 ‘개인’을 나눠서

- 가족이 함께하는 공동 실천 목표 하나 정하기
- 예: “이번 주는 서로에게 하루에 한 마디 감사 표현하기” 각 자녀는 자신의 연령에 맞는 개인 실천을 정하도록 유도
- 예: 효동: “엄마 심부름 1개 이상 하기”, “오늘 기도 스티커 붙이기”
성화: “기도노트 작성”, “하루에 한 번 묵상시간 갖기”

3. 활동지는 따로, 나눔은 함께

- 효동 자녀는 매월 제공되는 가정용 활동지로 활동
- 성화 자녀는 설교안이나 PPT 중 마음에 드는 한 부분을 골라 자기 생각 요약하기 또는 가족 퀴즈 만들기
- 활동이 끝난 후에는 가족 모두가 서로 만든 내용이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4. 찬양은 함께 즐기되, 표현 방식은 자유롭게

- 율동찬양은 함께 틀어놓고 모두 참여하되, 성화 자녀에게는 율동보다 가사 묵상, 가사 해석 후 느낌 나누기 등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 예: “이 가사 중 마음에 남는 말 한 줄 말해볼까?”
“이 찬양을 들으며 하늘부모님께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5. 부모의 역할 '연결자'

- 연령이 다른 자녀들이 함께 같은 말씀을 경험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중재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 각 자녀의 말을 존중하고, 서로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세요.

『미래세대 기본신앙교육 커리큘럼』 제작

주관 | 신한국본부 미래인재국

총괄 | 양권일 국장 (신한국본부 미래인재국)

기획 | 관예경 대리 (신한국본부 미래인재국)

집필 | 관다영 교육자문위원 (중앙대 아동청소년학과 가족전공 박사)

참고서적

미래의 희망 퓨어워터(2020)

천일국 명절과 기념일(2020)

하늘에 대한 효정의 길(2020)

천일국 가정예배 품성교재(2025)

미래세대 교육 커리큘럼

: 품성교육을 중심한 기본신앙교육

